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우수사례 두 번째 이야기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언제나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전국 최초, 오래된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

종전



노후 전통시장 재생사업은 주민동의, 토지보상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 지연

과정



노후시장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부지 소유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토지보상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제작하여 주민과 적극 소통

효과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여 도심 내 저렴한 생산시설 입지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의 비료활용 근거 마련

종전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는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많은 비용을 들여 매립 처리

과정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BioChar*)도 비료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안부·국조실·농진청과 적극 협의하여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개정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목재·식물 잔재물의 열분해를 통해 생성

효과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의 재(BioChar)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하여 연간 216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지자체 주도로 농가보급형 축분관리기 개발

종전



퇴비로 배출하는 가축분뇨에 대해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기반 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한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

*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과정



협소한 가축사육시설과 퇴비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퇴비교반장비*를 개발하여 보급

* 가축분뇨를 공기와 섞이도록 하고, 동시에 미생물 제제나 악취저감재를 살포하는 장비

효과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축분관리기를 가축사육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의 비용부담을 경감



학대피해아동 심터의 빠른 확산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

종전



아동학대피해 예방을 위해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어 학대피해아동 심터를 늘려야 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전국 76개소에 불과

* 아동학대상황 중 전담공무원이 별도조치 시까지 아동을 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제도

과정



NH와 업무지원 협약('21.3.30.)을 맺고 연접형 주택 시범운영안을 복지부에 건의하여 승인('21.4.30.)을 받아 N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하여 연접형 심터 시범 운영('21.5월)

효과



연령별 아동 분리보호, 전용 심리공간 운영 등 연접형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한 새로운 학대피해아동 심터 모델 제시, 전국으로 확산 기대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종전



과채류 단동하우스(1개의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를 운영하는 소규모 농가는 비용 및 기술학습 부담 등으로 스마트팜 구축을 주저

과정



스마트 영농정보 관리농장 110호에 센서를 설치하고('20.3월) 청양팜 앱 개발, 스마트관제 플랫폼 개발('20.4월) 및 컨설팅으로 시설과채류 재배 농업인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효과



농가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영세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기대